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농가창업 허브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내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농가의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과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습식가공장, 건식가공장, 자가품질실 등 센터내 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인의 창업 초기 설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 개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가공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실을 통해 새로운 농식품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습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땅끝이랑' 상표를 개발, 액상차와 잼, 청 등 습식 가공품과 분말, 건조, 스택 등 71종의 다

양한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줌, 잼, 과채주스 품목의 해접(HACCP) 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지역특산물인 미니단호박의 체지방 감소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 개별 인정성 원료 등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고구마 등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 및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2023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농특산물 활용 가공기술개발과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최우수 가공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으로 로컬컬거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지난 2019년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농가의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고흥군,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이 보이는 경영기록장 작성방법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영기록장 작성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경영기록장'이란 농산물 소득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 농가 스스로가 재배작목의 영농 기록을 해 영농현실을 반영한 수치화된 소득조사 자료를 말한다.

경영기록장은 소득분석표 작성에 이용되는데, 개별 농장의 단위 면적당 생산비, 소득 및 부가가치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영기록장은 일반현황, 영농일지, 경영비기록 등을 통해 경영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다"라며 "이번 경영기록장 작성 방법 교육이 농업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민 기자

완도군, 상왕산 대규모 열레지 군락지 생육 환경 개선해 산림·관광자원 개발

완도의 진산 '상왕산(象王山)'에 열레지가 활짝 피어 봄철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다. 상왕산 정상부에는 약 6ha(1만 8천 평) 규모의 열레지 군락지가 조성돼 있다.

'열레지'는 깊은 산속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백합과 속근성의 여러해살이 풀로 한 연구에 의하면 수명이 40년 정도라고 한다.

보랏빛 꽃잎 모양의 치마를 두른 듯해 '숲속의 요정' 또는 '바람난 여인'으로 불린다.

상왕산의 열레지는 표고 500m 이상 고지대에 낙엽 활엽수가 식생해 낙엽이 겹겹이 쌓여 양분이 풍부하고 흙이 험거우며 별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아 꽃을 피운다.

열레지는 5월에 열매를 맺어 씨앗을 퍼트리는데 씨앗에는 개미를 유인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스레 개미를 통해 땅속 깊이 여기

저기 흩어져 다음 해에 발아한다.

특히 여러 해 띄었지만 나오다 7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꽃망울을 틔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2018년 상왕산의 열레지 군락을 발견했으며, 개체수를 늘려 산림·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생육 및 번식에 지장을 주는 조릿대 등 하층목 제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열레지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은 열레지 생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나아가 열레지 관찰 시설 및 탐방로 신설, 국가산림문화자산 등재 등을 통해 상왕산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대규모 열레지 군락지를 보전 및 관리해 봄마다 등산객들이 열레지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장흥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 실시

장흥군은 최근 상반기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목표를 전체 농가의 10%로 설정하고 표고버섯, 쌀, 배, 블루베리 등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농산물우수관리 신규인증 신청은 작물 생육기간 2/3경과 전(수확한

달 전)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안전성 분석비는 전액 지원된다.

장흥군은 신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농약안전보관함, 소형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벼 포장재 인센티브, 벼 농산물우수관

리 인증 농가 자체 지원, 농산물우수관리 쌀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 전 필수 이수사항이며 갱신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기본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로는 농산유통과 수출유통팀(061-860-5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두연 기자

진도,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과정 운영

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연이어 '2024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로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280

여 명을 대상으로 진도군의 호국역사 교육과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특화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으로는 ▲무궁화의 유래와 호국역사 교육 ▲무궁화·태극기 그리기 ▲활동 게임 ▲무궁화 화분 묘목 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진도군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을 통해 무궁화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며 "삼별초 대몽항쟁의 근거지였던 진도군의 애항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보성군, 벼 병해충 방제 접수

보성군은 벼 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에 약제를 살포해 식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하 방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7월 중순~9월 중순 주로 발생하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을 방제하기 위해 총 사업비 6억 7천800만 원이 투입해 공동방제비를 1회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는 오는 5월 1일까지 거주지 소재 관할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단가는 1헥타르(ha)당 7만 2천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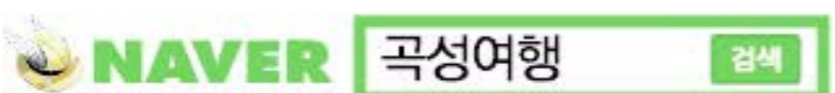
농업기술센터는 벼 병해충 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방제대행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강종수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자연경관명칭 지정대상 수상작